

사탕공장에 가지 마

꽃보다 화려하고 꿀보다 달콤한 사탕에
폭 빠져 버린 꿀벌들의 이야기



어떤 내용인가요?

최근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10%였던 소아청소년 비만율이 코로나 이후 19.3%(남아 25.9%, 여아 12.3%)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은 과도한 당류 섭취를 소아비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며, 성인비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붕붕이의 친구들은 사탕공장을 발견하고 곧바로 사탕의 달콤함에 빠져듭니다. 똥똥하고 무기력한 사탕벌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였지요. 요즘 어린이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주변에 달콤한 디저트와 음료수 가게가 가득한데 구태어 입맛에 쓴 건강한 음식을 찾아 먹을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붕붕이의 친구들이 그랬듯, 한번 당류에 중독되면 헤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몸은 무거워지고 마음도 무기력해지게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단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려다가는 도리어 반발심을 키우고 먹고 싶은 마음만 부채질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음식들이 왜 몸에 안 좋은지 스스로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달콤한 사탕 때문에 위기를 겪는 꿀벌들의 이야기가 담긴 그림책을 보며 어린이들은 올바른 먹거리,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 정보



손동우 글, 그림
14,000원, 40쪽
2024년 3월 20일



유아 > 유아 그림책
유아 > 누리과정 생활
주제 > 동식물과 자연



#꿀벌 #사탕 #소아비만
#환경그림책
#우수교양도서
#우수환경도서



1-1 국어 7. 생각을 나타내요
누리과정 -자연탐구- 자연과 더불어 살기

선생님 도움말

평화롭던 꿀벌들의 생활을 송두리째 바꾼 것은 사람들이 만든 '사탕공장'이었습니다. 물론 꿀벌의 삶을 파괴하고자 공장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만들어 낸 많은 것들이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 화살이 다시 돌아와 폭염, 폭우 같은 기후변화 문제로 인류를 위협하고 있지요. 만약 이상기온 때문에 꽃가루를 옮기는 꿀벌이 모두 사라진다면 농작물 생산량이 줄어 심각한 식량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사탕공장에 가지 마』는 인간의 욕심으로 위기에 빠진 꿀벌의 이야기를 그린 책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인정받아 우수교양도서 및 우수환경도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많은 어린이가 환경 파괴에 경각심을 갖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상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목표 책을 읽고 내용과 주제를 생각해 보아요!

표지를 보며 책의 내용을 상상해 봅시다.



 꿀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꿀벌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봉봉이의 특기를 생각해 보세요.



목표 책과 삶을 연결 짓고, 나만의 이야기를 써 보아요!

사탕공장을 발견한 꿀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친구들의 모습을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 봉봉이가 계획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